

지 상 범 석

불행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나와 내 가정만 위한 기도와 구복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화해하고 전처럼 힘을 합쳐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거버이와 자라가 결국은 한 몸임을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서 사회나 가정이나...

입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모든 존재와 생명이 하나의 줄기 속에서 태어날 수 없는 인연들을 맺고 있는데 그 인연의 실오라기를 가버려 여겨 끊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자들이며...

처럼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나 아닌 모든 것에 대한 공경입니다. 공경심은 평화와 사랑을 낳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것입니다. 그는 부장하며 무엇을 성취하려 하지만 이미 그 투쟁 자체는 인간의 존재 밖에 있는 불행을 불러 들이는 어리석음에 불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 앞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일 때 일체 중생은 서로의 생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밀림으로 들어가 벌거벗고 사냥하며 살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몸통 위에서 살아가는 수 많은 가지요 잎새임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삶이 자기것만도 아님을 인식할 때 보다 큰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40년을 길에서 가르침을 퍼시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법에 의지해 부지런히 닦으라고 하셨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자기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듯 스스로의 공부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사람으로부터 모든 중생계의 존재와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불자들은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기여가 모여 동체대비의 큰 사랑이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일체중생 한몸’ 서로 자기처럼 아낄때 ‘큰 나’ 발견 머리숙이는 下心 평화·사랑·청정한 인연의 고리

자재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이 다 한 몸이라는 뜻에서 사해동포(四海同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동체대비(同體大悲)라는 말을 하는데 사해동포와 동체대비는 같은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해동포가 인류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동체대비라는 말은 하나이되 몸과 마음을 통틀어 하나라는 보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이 든 열매를 따먹는 어리석은 머리가 되어서도 안돼고 혼자 맛있는 것을 챙겨 먹다가 다시 불행한 신세로 돌아가는 자라와 욕심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존엄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현대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생명을 전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들도 속 좁은 종교이기에 앞에서는 살생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발달한다는 문명이 역으로 일체중생의 존재를 가능케하는 청정한 인연의 고리를 부식시키는 면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는 불자들이 오계를 생명처럼 귀하게 지켜가 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겠지요.

대한 발전이테를 모기도 모릅니다. 알람요도 없고 알 아도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들 이기에 이내 잊어 버리겠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미개인이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복잡한 사회구조를 얻어 놓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문명국가 도시민들이 더 바보들이라고 그들이 놀려 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으니 그만큼 걱정도 없고 생명의 존재에 대한 위협도 덜 받을 것 아닙니까. 문명인을 자처하며 이익의 장벽만 높이 쌓고 허장성세의 표비명 남기는 문명인 보다는 이름없이 살아가는 밀림 속의 사람들이 더 위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에게 멸망의 순간이 온다면 그 원인은 원시림 속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밀림 숲 속의 문명어만인에 의한 것일 겁니다.

“이익장벽 높이 쌓고 허장성세 표비명 남기는 문명인 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한 밀림속 원시인 더 위대”

가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살펴 보십시오. 문명의 이익이나 개혁의 당위성에 매몰된 파당논리 또는 나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와 구복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달라도 몸은 하나인 중생계의 현실에서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입니까. 나의 거버이요 나의 자라인 중생들끼리 스스로 머리를 낮추고 서로의 어리석음을 채워 주는 따뜻한 자비의 실천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여 가면서 자연을 보는 시각이 점점 통일적이 되어 간다는 점을 지난 주에 이어 계속 다루어 보도록 하자. 현대물리학의 두 기둥은 양자역학과 상대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디랙이라는 물리학자는 이 두 이론을 상대론적 양자역학으로 통합하였다. 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의 진공이란 어떤 에너지 준위 이하의 상태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입자가 가득 차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공이란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즉 색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입자들이 가득 찬 상태 즉 색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는 물리 이론이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색과 공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틀이 마련되었으며 색즉시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색즉시공이란 색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주괴공의 단계를 거

진공이란 ‘없음’ 아닌 입자 가득찬 상태 우주 진화도 차별상 아닌 인연의 화합

처 공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색이 공으로 변하고 공이 색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색의 본성 그 자체가 그대로 공이요 또 역으로 공이라는 것도 색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무의 양면을 말하고 유무의 차별을 떠난 중도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여서, 유와 무와 중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과 공이 삼제원융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를 보살은 대지도론에서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나고 유가 아님을 떠나고 무가 아님을 떠나서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능히 바른 도를 행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차별을 떠난 세계상은 물리학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프리고진은 우주의 구조를 평형 구조와 산일 구조(dissipation structure)로 구분하였다. 평형 구조란 정태적이고 안정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구조를 말하며, 산일 구조란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구조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우주가 바로 이런 구조이다. 산일 구조에서 계의 요동이 있을 경우, 그 요동의 정도가 경미하면 계가 그 요동을 흡수하여 요동이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출강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정진·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1. 모집과정: 법사과정,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6년 3월 1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교무처.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TEL (02) 720-1836, 733-1959, 737-5305. FAX (02) 720-1836.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숭 뚝, 체면치레 뚝! 사람의 길.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도 말고, 탓도 없이, 넉넉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한번뿐인 인생, 생명을 오직 하나. 연습용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도상징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황폐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정점 판매중 27,000원/345원/산림권 영향본. TEL 5290140~5 FAX 5792312